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중요하다 / 문제 해결을 재촉하는 사회에 저항하며 혹은 (에 물음 던지기)

나카지마 히로카즈(中島浩壽) / 박동섭 옮김

현대철학을 전공한 그는 일반 고등학교 교사로 7년을 보내고 이후 프리스페이스YMCA Liby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일을 하며 대학 강의도 나간다. 특히 등교거부 경험자나 ‘니트’라 불리는 청년들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 사회임상심리학회에서 카운슬링의 문제, 심리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글은 오자와 마키코와의 공저인 『마음을 상품화하는 사회』에서 뽑았다. littleegan@gmail.com

해결을 재촉하는 시선

‘마음의 케어’라는 말이 확산되어 가는 요즘, 대학이든 병원이든 중고등학교든 사람들은 빨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촉한다. ‘위기 속에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그 상태로는 나중에 큰일을 당한다’,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문제’는 무조건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더불어 고도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선구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더 힘을 얻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문부과학성은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교육목표의 하나로 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회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문제해결능력은 **필수 덕목 중의 하나**이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그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 다양한 사회변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모두 그렇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 이 사회는 해결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첫째는 대답이 확실한 문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교사는 문제 푸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제를 낸다. 학생은 주어진 문제에 파고들어 해답을 찾아낸다. 푸는 방식만 알면 문제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다. 문제는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해답이고 해법이므로 **좋은 문제라는 것은** 해결에 이르는 과정이 알기 쉬운 예제에 불과하다. 문제의 평가는 해결방법이 알기 쉽게 습득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해결방법이 많고 복잡한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문제라는 논리다. 의미가 있는 것은 해답 혹은 해결방법이지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전제로 하는 문제만이 의미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시라. 우리가 일상에서 부닥치거나 만나는 문제는 답이 그리 간단치 않다.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 해도 여러 개의 해법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아니 정답 같은 건 애당초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다. ‘나는 장래 어떤 직업을 구하면 좋을까?’, ‘일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같은 물음에 정답 같은 건 없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같은 문제도 쉽게 대답하기 힘들다.

당연, 이런 문제는 해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다. 해결에 이르는 길도 복잡해서 쉽게 해답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또 어떤 답을 찾아냈다 해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왜 공부해야만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아 나는 이것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네’ 하는 자각 끝에 안심했다 하자. 일단 해결은 봤지만 이 질문은 앞으로 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계기가 오면 다시 머리를 싸매게 될 것이다.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평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상의 삶에서는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가끔씩 불쑥불쑥 다시 떠오른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다면 해결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거나 문제해결 기술을 익히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매뉴얼과 스킬, 문제해결능력 같은 건 해답을 미리 설정해둔 문제라면 도움이 된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예시로 던지는 문제들이 그렇다. 복잡한 조건이 중첩되어 있는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에서는 매뉴얼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실제로 ‘마음의 케어’를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훈련 받는 것이 이런 ‘예제사례’들이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례는 단순화되어서 해결방법을 이끌어 내기 쉽도록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나오는 해결 방법과 도움 방식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정답을 전제로 한 문제’로 바꾸어 도출해 낸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직면하는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해답도 확실하지도 않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해결을 재촉하는 관점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서 때로는 생각하고 때로는 고민한다. 이때 해결을 재촉하는 관점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이 관점은 ‘등교거부’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 ‘이대로는 장래 자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은둔형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구체적인 소리가 되어 이들을 압박한다. 문부과학성도 이러한 목소리의 원근이 되어 ‘단순히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부과학성, 2003년). ‘은둔형 외톨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있으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압박을 가해온다. 물론 카운슬러와 정신과의사가 직접 본인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테지만,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는 본인을 압박하게 된다.

세리자와 슌스케(芹沢俊介)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정열』(2001년)이라는 책에서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큰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재촉하는 사회의 대합창에 **대해** ‘정말로 그럴까?’ 하는 의문 부호를 붙이고 있다. 이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큰일이다’라는 주위의 목소리가 은둔형 외톨이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주범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일의 문제이거나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 자립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문제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

금까지의 **자신의** 모습과 결별하고 싶다가나 탈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로는 큰일이다’라는 목소리는 이 사고의 흐름을 막아 버린다.

고등학교 교사 시절에 **내가 만난** 한 학생의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그 학생은 여름방학을 끼고 6개월 정도 학교를 쉬면서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다. 은둔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하고 싶다. 그런데 학교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압박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시선에서 일단 잠시 벗어나서 천천히 깊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그는 집에서 천천히 생각하고 6개월 후에 자기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고는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보통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을** 계속해서 대학에 진학했다. 그의 답임도 다른 교사도 ‘빨리 어떻게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조기 발견 · 조기 대응의 관점이 점점 더 위력을 **떨치는** 상황에서는 어떨을까?

문제 바뀌치기

해결을 재촉하는 관점은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바뀌치기해 버린다. 당연한 것이지만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성적 정체성의 문제이거나 친구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나 학교제도에 대한 의문일지도 모른다.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철학적인 물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결을 재촉하는 관점, 즉 심리학적 · 예방적 관점은 그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

‘마음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는 관점은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 ‘마음의 과정’밖에는 흥미를 갖지 않는다. 학생이 공부의 의미와 자신의 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더라도** 카운슬러의 관심은 ‘스트레스 반응은 어떨까’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 같은 **내담자의 마음의 상태에 있다**. 이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카운슬링은 때로는 몇 년이나 계속되는 긴 과정이다. 따라서 해결하기 쉬운 문제로 바꾸어서 그것을 해결해보려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당사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남는다.

‘나의 성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같은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마음의 문제로 환원되어 버리고 결국 ‘부적응’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게 된다.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을 정신과의사나 마음 전문가들이 ‘성적 이탈’이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문제의 바뀌치기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를 ‘문제아’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이 문제 바뀌치기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속임수로 비취진다. 카운슬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 ‘속았다’라는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열심히 자신의 문제를 카운슬러에게 호소했는데,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말했는데, 자신의 의견과 문제제기에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고, **그 카운슬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자신의 성장 내력과 가족과 마음의 상태뿐인 것 같다. 완전히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해결을 재촉하는 경향은 또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배치하는 경향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으로 확대되어가는 예방의 관점은 네트워크로서 기능한다. ‘마음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감시의 그물망은 학교·의료기관·상담기관·경찰·지역의 연대 위에서 만들어지려고 한다.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행위는 감시를 받게 된다. 곧 아주 자그마한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감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를 발신한 사람은 교사나 ‘마음 전문가’ 혹은 복지 **전문가들의 조기 개입의 대상이 된다**. 또한 간단한 대응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은 전문 의료기관에 보내진다. 개개인에 대한 컨트롤, 전문기관으로의 감금·배제가 조합된 선별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될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 짚은 것이다. 이 네트워크가 해결하려는 것은 ‘마음의 문제’뿐이다.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그 ‘고민’뿐이고 원래 있었던 ‘문제’는 그대로 방치된다.

나의 지인들 중 몇은 ‘마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에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나는 그러한 문제야말로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함께 생각하고 싶다. 성적 정체성, 삶과 일, 자립 등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상 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천천히 문제에 접근해가고 싶다.

주제를 막다른 지경에까지 몰아넣는 물음

문제에 한걸음씩 천천히 다가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해답을 끌어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설정 방식이 특정한 해답을 방향 짓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해답 방식은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는 법이다. 그것이 삶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식은 크게 변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설정하는 사람과, ‘좋은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설정하는 사람 사이에 **해답 방식은** 다를 것이고,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왜 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일까?’라는 물음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학교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사람 사이에는 해답을 이끌어 내는 방식과 삶의 방식도 다를 것이다. 또한 ‘왜 나는 동성을 사랑할까?’라고 물음을 설정하는 사람과 ‘왜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시되어야 하는 걸까?’라고 물음을 설정하는 사람 간에는 사회에 대한 자세도 다를 것이다.

이처럼 해결에 이르는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은 결국은 삶의 방식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어떤 문제라도 받아들이고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학생이 상담을 요청한 문제를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한 것도 아니다.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도 많이 있고, 다른 형태로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또한 학생이 설정한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로 확장되어간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다. 그것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하는 것을 포함해서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 설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방식 중 한 가지는 자신에게 집요하게 묻는 문제 설정 방식이다.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일까?’라는 물음의 설정 방식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 물음은 당사자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세이다. ‘왜 이 아이는 학교에 갈 수 없는 걸까? 왜 이 아이만일까?’라는 주위의 시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대로는 앞으로 큰 일이다’라는 목소리도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설정 방식은 경찰관이 행하는 조사나 심문 형식과 아주 유사하다. 조사관은 ‘네가 한 게 맞지?’ ‘네가 한 게 맞으면 인정하고 편해져라’ 하고 말한다. 여기서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책임의 소재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물음을 설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조사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증거를 포착해서 ‘이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묻는 것이다. 행위의 이유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기는 이것 이것이다’라고 묻고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재확인의 의식이다.

‘왜 나만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일까?’라는 물음도 책임의 소재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게다가 누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가도 미리 정해져 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 자신이 이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키위 준**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뒤의 일이다. 이 물음에 대답하는 작업은 미리 알고 있는 답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재확인의 의식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작업이다.

이 물음은 개인의 책임을 확인한 후 개인의 마음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물음이다. ‘왜 자기 자신만이?’라고 하는 물음은 자신의 마음의 모습으로 향한다. 즉, ‘마음의 문제’로 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음의 방식, 문제 설정 방식은 자신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학교의 모습, 교사의 모습,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등, 이러한 것을 제쳐 두고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해 버리는 방향성을 이 묻는 방식은 품고 있다. 이러한 주체의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의 설정 방식은 다른 문제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음을 자신을 향해 설정한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문제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지금까지 문제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기를 해왔다. 이 ‘설정한다’라는 표현이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개인과 사회, 혹은 개인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게 맞는 일은 어떤 것일까?’라는 문제는 개인 주체의 커리어 형성을 요구하는 사회와 분리할 수 없다. ‘왜 나는 학교에 갈 수 없는 걸까?’라는 물음도 현재와 같은 학교제도 아래에서 의미를 갖는다. 90% 이상이 학교에 다니는 사회이기 때문에 비로소 무게를 갖는 물음인 것이다. ‘나는 왜 동성을 사랑하는 것일까?’라는 물음도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를 엄밀하게 구별해서 차별하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나는...’이라고 설정된 문제조차도 문제의 성립 과정을 개인의 내면에만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무리가 따른다. ‘문제’는 사회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 ‘문제’를 사회학적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무리가 따른다. ‘문제’는 사회로

부터 일방향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 개인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 내면으로도 사회 **그 어느 쪽에도** 환원할 수 없다.

문제를 개인의 내면에 환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에 접근해 가는 행위는 심리주의적인 대응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 카운슬링과 같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정을 수용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대응으로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해결방법도 사실상 요원하게 된다.

문제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한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나만 학교에 못 가는가?’라는 물음이 주위의 ‘왜?’라는 색안경을 안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문제 설정 방식을 바꾸려고 해도 좀처럼 되지 않는다. 주위와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관해서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과 같은 장이 생겨나서 관계 속에서 문제에 접근하려는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묻는 힘

묻는다는 행위는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습관, 규칙, 의식도 문제화해서 무너뜨린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이성애 중심의 ‘상식’을 새롭게 묻는 것이고 이러한 물음은 우리의 관계 양상도 문제시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와 교육 그 자체에 대해 던지는 문제도 우리가 은연중에 전제로 하고 있는 교육관을 흔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에 대한 의문, ‘사회적 자립’에 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묻는다는 행위는 우리 모습을 변화시켜서 타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방식을 근저로부터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케어’는 이 묻는 힘을 억누른다. 오자와 마키코는 ‘카운슬링은 분노와 불안을 억누른다.’ ‘다루기 힘든 복잡한 감정을 달래고 온화하게 적응해가도록 이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카운슬링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제’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사회와 교사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게 한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카운슬링은 묻는 힘을 억눌러 버린다. 교육과 사회의 모습, 성 정체성의 양상을 묻는 사람에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당신의 마음의 고통과 불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라는 자세로 카운슬러는 대응한다. 혹은 ‘자네가 생각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먼저 해결하기 쉬운 문제로 좁혀서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접근방식을 바꾸게 한다. 그 결과 ‘마음의 문제’와 해결하기 쉬운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어느새 당초의 문제는 은폐되고 잊혀진다. 우리의 삶의 양상, 관계의 양상을 근저로부터 묻는 힘을 가진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좀 더 임팩트가 적은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기가 힘든’ 문제에 접근하려는 자세를 누그러뜨려서 ‘온화한 적응’으로 이끌어가는 기능을 카운슬링은 담당한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묻는 힘을 진정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카운슬러에게 ‘속았다’고 느끼고 카운슬러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문제의 대부분은 나 자신의 모습, 관계의 양상에도 흐르고 있기 때

문이다. 그 문제가 자신들의 양상과 관계의 방식,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묻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관계의 방식을 문제화해서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모색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작업은 ‘해결’에 이르려는 작업에 비교해서 언뜻 보기엔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관계를 문제화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과 연결되는 전향적인 작업이다.

‘마음의 케어’가 침투하고 있는 사회는 해결을 재촉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문제에 직면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카운슬러 같은 전문가 등이 개입해서** ‘이대로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자기 실현을 재촉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는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재촉하는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문제’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의 삶을, 관계를, 사회의 양상을 꼼꼼이 계속해서 물어나가야 하는 것이다.